

임을 망각한 이스라엘의 주권자 다윗에게 주저없이 저주를 내리고 이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마치 그것으로 그의 임무가 끝난 것처럼…….

이것이 예언자의 한 모델이다. 그는 하느님 외에 아무것에도 예속되지 않고, 바로 그러기에 두려움 없이 진실을 폭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진실의 폭로, 그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증언이다.

### 참고문헌

문익환, 「예언운동의 개척자들 : 나단」, 『기독교사상』 제61호(1963. 1).

### 3. 왕권과의 대결자—엘리아

예언자는 현자도 철인도 아니다. 그렇다고 미래를 알아맞히는 점쟁이도 아니다. 그는 미래에 의해서 현재를 본다. 그러나 미래를 향해 막연히 꿈을 꾸는 것이 아니다. 그는 민중의 한복판, 역사의 선두에 서서 양자택일의 결단을 요구한다.

B.C. 9세기 중엽에 이스라엘 종교는 큰 위기에 부딪혔다. 가나안의 토착종교인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 민중과, 나아가서는 왕의 세력권에까지 침투되어 이스라엘에서는 공공연한 혼합 종교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다.

유목의 종족으로 방랑하던 이스라엘이 하느님과의 약속에 따라 술한 역경 끝에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부터 가나안의 기존종교들과 자연스럽게 혼합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종교는 정착한 민족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전적으로 담

당하는 신을 따로 결정하였다. 병을 주관하는 신, 비의 신, 태양의 신 등이 그런 예들이다. 가나안에서는 그러한 신들 중에 바알 신을 으뜸으로 섬겼다.

바알은 결실(結實)의 신이다. 농사는 정착민의 유일한 생업이었으므로 풍요한 수확이야말로 가장 큰 희망이었다. 그러므로 결실의 신인 바알은 농경민족에게 가장 중요시되는 신이요, 동시에 예배의 대상이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민은 지금까지 유목생활 속에서 저들의 신앙을 지켜왔다. 저들은 하느님과과의 계약을 표시하는 법계를 앞세우고 끊임없이 이동했다. 이 법계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현존의 구체적인 표시였다. 그러기에 이 하느님은 자연의 하느님이라기 보다는 역사의 하느님이었다. 따라서 바알 신과는 대조적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바알 신은 정착민의 신이다. 가나안 족속은 자기들의 땅의 주인, 모든 곡식이나 생산을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신(神) 이해가 필요했다. 그것은 여호와는 인도하는 신, 즉 역사의 신만이 아니라 이 자연도 주관하는 신이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스라엘민 중에는 바알 신의 특수 영역을 인정하려는 패, 이스라엘 신과 바알 신을 같은 신이라고 주장하는 패도 있게 되고, 일부는 두 신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심지어 바알 신에 전향하는 자도 생겼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자리잡은 아합 왕은 공공연히 바알 종교를 시인했다. 그는 페니키아의 왕녀인 이세벨과 정략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의 영향으로 아합은 궁전내에 바알 신전을 세움으로써 마침내 통일된 종교로 만들어버렸다(열왕상 16, 29~34).

이때 아합에게 맞서면서 이스라엘에게 준엄한 비판과 함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자가 예언자 엘리야이다. 엘리야는 이스라엘민을 향해서 부르짖는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만일 야훼가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시오(열왕상 18, 21).

이것은 ‘이것도 저것도’라는 애매한 입장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극렬한 표현이며 선고(宣告)이기도 하다. 이 사건에 이어서 엘리야와 바알 종교의 대표들의 극적인 대결을 전하고 있다(열왕상 18, 16~46). 그 묘사는 민담적인 전설형태로 되었다. 그것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종교의 위기를 생명을 내걸고 지켰다는 사실을 집약하여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엘리야의 비장하고 철저한 대결과 투쟁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종교는 자취를 감추어버렸을지도 모른다.

그 싸움은 엘리야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사느냐 죽느냐가 판가름나는 대결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느님과 약속인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그 첫 조항으로 받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바알 신을 섬긴다는 것은 이 첫 계명을 저버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존재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결단은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문제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엘리야의 이 대결이 없었더라면 그리스도교마저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엘리야의 이 투쟁은 이스라엘을 제 모습으로 돌리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그 강대하던 바알 종교가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

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엘리야의 예언자적 측구는 그후 언제나 계속되었으며 신약에서도 거의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

나는 네 행실을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덤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덤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덤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내겠다(계시 3, 15~16).

엘리야 전설은 예언자의 풍모를 잘 드러낸다. 예언자란 영웅도 현인도 아니며, 오직 하느님의 영을 받았을 때에만 비로소 특별한 용기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느님의 사람’이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시작된다. 엘리야는 아합왕 통치시대에 홀연히 나타난다. 그는 줄곧 야훼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그런 표현으로 ‘여기를 떠나 .....으로 가라’는 지시가 자주 나온다. 그의 등장은 3년이나 계속되는 한재와 관련이 있다. 이때 그는 바알 신과 대결한다. 승리한 그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사제 950명을 한칼에 쳐죽인다. 그리고 비가 오는 기미가 있을 때 아합의 병거를 앞질러 신들린 사람처럼 뛰어간다. 그러던 그가 아합의 여인 이세벨의 복수가 두려워 광야로 정신나간 사람처럼 도망친다. 기진한 그는 싸리나무 덩굴 밑에 숨어,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를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열왕상 19, 4)라고 한다. 순식간에 그는 이렇게 비접해진 것이다. 다시 기운을 낸 그는 한 동굴로 잠입해서 은둔생활을 시작한다. 거기서 야훼를 만난다. ‘가슴에 불이 붙은’ 그는 야훼에게 하소연한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만군의 하느님 야훼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단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죽였습니다. 이제 예언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열왕상 19, 14).

이것은 철저한 혼자만의 절규이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입맞추지도 않았던 7천 명”이 남아 있음을 깨달았다. “혼자가 아니다. 지하운동은 계속되고 있다”는 신념은 그를 소생하게 했다. 그러므로 그는 다시 힘을 얻어, 한 여인에게 빠져 그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간계와 폭력으로 약자(弱者)인 포도원의 주인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한 아합에게 홀연히 나타나 “나בות의 피를 핏던 개들이 같은 자리에서 네 피도 핏으리라”(열왕상 21, 19)고 사자후를 터뜨린다. 그렇게 귀신처럼 사라졌다 나타나서 권력자와 싸우던 그는 후계자(엘리사)에게 그의 배턴을 넘겨주고 영원히 사라진다.

이와 같은 서술은 비록 전설적이기는 하지만 ‘하느님의 사람’인 예언자의 풍모를 잘 나타내고 있다.

#### 참고문헌

민영진, 「엘리아 이해」, 『기독교사상』 제140~146호(1970. 1~7).

김정준, 「엘리아 연구」, 『세계와 선교』 제29호(1973. 4).

문익환, 「엘리아」, 『기독교사상』 제63호(1963. 3).

#### 4. 종교보다 정의를 -아모스

이스라엘은 왕국건설 후 1세기내에 급속한 사회적 변천과정을 겪